

‘香粧반세기’

태평양화학은 장업계를 이끌어온 축적된 기술과
첨단화학기술로 화장품의 역사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1945

한국 고유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자키고 우리 피부에 잘 맞는 국산
화장품을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한
의지로 출범한 태평양화학—
이는 곧 한국의 화장품 역사의 시작
이었으며 고유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아름다움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태평양화학은 ‘품질제일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라는
창업이념 변함없는 기업정신으로
오늘날 국내 최대의 화장품
메이커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1

태평양화학은 본격적으로 현대화된
공장을 건설 국산화장품 시대의
창을 열었습니다.
장업계 1위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화학분야에 집중적인 연구
개발과 기술 축적을 사들여 국산
화장품을 국제 수준으로까지 향상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장업계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온 태평양화학은 자부심을
느끼며 계속해서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라는 기업슬로건 아래 그룹으로
성장한 태평양화학— 아시아, 유럽,
미주 등지에 해외지사망을 설립하기
시작 세계의 관심을 모으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술과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써온 결과입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환원 실천과 함께 스포츠
및 문화발전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1971



첨단기술의 산실인 태평양 기술연구소
설립 이곳에서 유전공학분야에
정통한 장에 연구진들이 모여 기술
개발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언급술이라 불리우는
생명공학을 응용, 화장품·식품·
의약품·가정용품·효소 분야에까지
많은 성과를 가져온 태평양
기술연구소— 세계 유수의 기업과
학계의 비상한 관심속에 미래의
첨단기술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978

세계가 한국의 아름다움에 눈물리기
시작 아오레화장품은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는 세계인의 화장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태평양화학은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공식업체로 선정받아
화장품을 비롯

가정용품, 식품분야에 이르기까지
반세기의 노력에도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태평양화학은 세계속의
기업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1988

여성

월간여성 3월호(통권 261호) / 1989년 3월 10일
(매일 10일) 발행 / 1964년 6월 13일 등록(서)라-7
1965년 2월 25일 제3종 우편물(나)인가
(우편번호 140-013)

사단 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특집
1989년도 사업계획



1989.3



딱 한 스푼이면 됩니다

파워크린은 고밀도 세제이기 때문에
세탁에서 표백, 살균까지 한 스푼으로 끝납니다.

이제, 세제를 많이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워크린 딱 한 스푼으로 끝내세요.
파워크린은 고밀도 세제이기 때문에
딱 한 스푼으로 세탁에서 표백, 살균까지
끝내줍니다. 종래 세제의 1/3만 넣어도
충분한 세탁효과를 발휘하는 파워크린!
빨래할 때
파워크린을 한 번 써보세요.
갈 안 빠지던 찌든 때,
얼룩까지 짹 빠집니다.

**세탁력파워!
표백력파워!**

제조원
◆ 동양화학공업(주)
판매원
◆ 청구물산(주)

월간 여성

1989년 3월호
통권 261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女權/박동은
어린이를 위한 장상화담

특집 / '89년도 사업계획

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8 대한간호협회 · 대한가톨릭여자결핵회
대한조선협회 · 여성문제연구소
중앙부인회 · 대한아학사협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가톨릭여성연합회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한국부녀복지연합회 · 한국여성환경공협회
한국자수협회 · 한국우먼스클럽
한국여성문화생활회 · 국제조타서울클럽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대한전문군경미망인회
대한약사회여약사회 · 우리웃협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원

17 아들의 여성계 동향 / 김경자



20 마스크에 비친 여성 / 마스크 모니터회
여자는 외모로만 평가받는 존재인가

22 근로여성이 알아야 할 법규 18 /
윤자아

24 여성연구 / 여성문제연구소
준거점을 통해서 본 여성의식
발전의 장애

26 사회의 남녀차별 ② / 박은식
이동국민으로서의 여성

30 해외여성 ⑥
인도네시아 여성의 지위

32 소비자리포트 / 안기희
바다에 대해 좀더 친근하자

35 해외여성소식
독일: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증가

36 여성문화 / 박금옥
여성의 역할

38 단상 / 각배희
건물집 폐지 아직 때가 이르다

40 우리들의 광장



45 협의회 소식

46 지방여성단체소식

어린이를 위한 정상회담



박동은
(유니세프 대외담당관·본회 기획위원)

올가을 유엔총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승인될 예정이며 각국 정부는 뒤이어 이 협약을 비준할 계획이어서 새삼 아동의 권리문제가 '89년의 세계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작년말에 발표된 세계아동현황 보고서에서 유니세프가 제의한 아동을 위한 정상회담개최에 대해 아프리카와 유럽 등지 10여개국 정상들이 호응을 보이고 있어 아동문제는 더욱 세계적 관심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어린이문제는 예방접종이나 질병예방 등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보건분야에만 치중해 왔으나 '89년에는 아동문제의 차원을 국제정치와 경제적 관심사의 한 가운데로 끌어올렸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수천만의 아동들이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며 천박한 환경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그나마도 5세이내에 목숨을 잃는 숫자는 매년 1천4백만명을 넘고 있다. 세계가 힘을 합쳐 도와준다면 이들의 죽음은 방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없는 죽음과 '소리없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80년대 들어 '아동의 생존과 발전의 혁명' (Child Survival and Development Revolution)이란 사업으로 탄생, 유니세프를 주축으로 세계보건기구와 각국정부

및 수많은 민간단체의 호응으로 전개되어 개도국의 예방접종률을 올리고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등 지난 수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경기후퇴와 부채국들의 외채상환으로 아동의 생존발달의 노력은 타격을 받고 있다. 실제로 50여개 부채국의 어린이들이 보건비와 교육비의 삭감으로 지난 1년간 50만명이 목숨을 잃고 국민학교 입학률도 감소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고 '89 세계아동현황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집단적인 영양부족과 질병에 의한 죽음, 문맹 등 절대빈곤의 최악의 경우가 어린이들에게서 인간으로서 타고난 권리와 자기발전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이러한 악순환은 끊이지 않고 계

속될 전망이다.

1조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갚기 위해 매년 6백억달러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연간 원조액 5백억달러를 훨씬 웃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정상회담의 주제는 핵무기 제한이나 냉전의 해소 등 군사적·정치·외교적·경제적 문제에만 국한되어 왔으나 이제야말로 어린이를 주제로 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본다.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이 외채상환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린이문제가 모든 정치적 의제의 맨앞에 놓여져야 된다고 주장하여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오늘의 어린이가 내일의 세계」라는 명확한 주제는 어린이문제를 국제정치와 경제적 관심사로 전환시키기에 족한 것이다.

이미 스웨덴의 칼슨수상을 비롯한 선진국 원수들과 짐바브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의 대통령 등 10여개국의 국가원수들이 어린이를 위한 정상회담 제안에 찬성함으로써 올가을 유엔총회의 어린이권리협약승인과 때맞추어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어린이를 위한 정상회담이 세계 어디에선가 열릴 것이 기대된다. ♣

'89년도 사업계획

본회가 올해에 추진하게 될 사업방향은 지난 2월21일 개최된 제30차 정기총회에서 확정되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여협 30년사' 발간 및 기념세미나 개최 등 30주년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짜여진 본회의 올해 사업계획과 회원단체의 사업계획을 본지 특집으로 소개한다.



1989년도 사업계획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본회 창립3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정립하는 해로서 '여협30년사'를 발간하며 30주년 기념세미나 및 기념라선행을 거행한다.

1. 조직관리사업

본회 제반규정 제정 및 조직확충 및 육성에 힘을 기울이며 조직육성을 위해 회원단체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 본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여성단체협의회와의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해 지방여성단체장 연석회의, 지방여협 순방도 할 예정이다.

2. 30주년 기념사업

본회 창립3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정립하는 해로서 '여협30년사'를 발간하며 30주년 기념세미나 및 기념라선행을 거행한다.

3. 여성지위향상사업

1) 전국여성대회(제26회)

매년 2천여명의 여성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바람직한 여성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여성공동체의식을 갖기 위해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 반영되도록 촉구한다.

2) 여성단체 지도자연수

여성단체지도자의 의식을 높이고 단체간의 친선을 통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지도자연수를 한다.

3) 회원단체 실무자교육

회원단체 실무자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 실무능력향상을 위해 실무자교육을 갖는다.

4) 매스컴모니터링사업

대중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매스컴이 여성을 상품화하고 왜곡된 여성상을 보여주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모니터를 모집하여 교육하며 이들이 정

기적인 월레모임을 갖고 토론한 내용을 각계에 송부한다. 또한 기존 모니터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다.

5) 가족법개정사업

13대 국회에서는 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개정촉구 활동을 펼친다.

6) 근로여성관계사업

남성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장사회에서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가해지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근로여성고발창구를 계속 운영하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능력향상을 위한 근로여성교육, 근로여성의 차별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7) 시사관련사업

앞서 언급한 사업이외에 여성과 관련된 시사적인 문제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 출판공보사업

1) '여성'지 발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의 교육·정보자료로서의 기능을 하는 월간「여성」을 연 11회 발행한다.

2) 'The Woman' 발간

한국 여성계의 중요 움직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The Woman'을 연1회 발행한다.

3) 도서자료실 운영

여성관계 도서구입 및 자료교환을 한다.

4) 홍보활동 및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5. 국제관계사업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와의 교

류, 내방외국인과의 교류로 국제친선을 도모하며 국제자료를 교환한다.

6. 소비자사업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교육(연4회), 시민교육(연20회), 소비자보호세미나(연1회)를 개최하며, 모니터를 활용해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를 선정, 조사·분석하여 소비자 의식고취에 기여하는 조사연구 사업도 실시된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도 계획 중이다.

7. 특별사업

남북한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족공동체의식 회복과 상호이해를 위하여 통일세미나를 개최한다.

8. 재정관계사업

본회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기본자산을 보존 유지하고 자산증식을 위한 사업을 한다.



대한간호협회

1. 정책연구 강화

간호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2. 간호교육 수준향상

간호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교과과정 개선 사업과 간호사 국가시험전담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3. 간호업무 수준향상

간호관련법 개정, 간호전달체계 개선, 간호인력의 질적향상을 공통과제로 추진하고 분야별 과제로 임상(병원)간호업무·보건간호업무·학교간호업무·보건진료원업무·마취간호업무 수준향상을 추진한다.

4. 사회경제복지증진

취업하고 있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미취업 간호사의 취업 활성화, 원근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간호보험제도와 관련한 자료수집, 정치 및 행정분야에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작업을 병행한다.

5. 대지역사회사업 강화

경제기획원, 문교부, 보사부, 노동부 등 행정부처의 위원회, 관련기관 및 단체에 참여하고, 단기가정간호대학 강좌 및 복지시설 후원 등 대지역사회사업에 참여한다.

6. 전문직관 확립

제반사회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을 표명하고 간호윤리의식 양상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직업관 확립에 기여한다.

7. 국제교류 확대

'89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간호협의회(ICN) 총회를 주관하고 국제학술대회 개최, 해외연수안내 및 추천, WHO 참여, 국제 중견간호사 워크샵, 중국간호학술대회 등 국제회의 및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국제교류를 확대한다.

8. 기타

간호협회 기구 조직강화 및 신문사 체제 확립, 출판사 체제 확립을 위한 사업을 펼친다.

속 운영하고 한해나 수재시 즉각 도움의 손길을 전개하고 성탄절 이웃돕기를 계속 시행한다.

4. 교육충절 사업

절제운동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수합하여 기를 수 있도록 어머니 강좌 및 선서식을 갖는다.

5. 청소년 사업

청소년들에게 절제정신을 넣어주고 금주금연을 할 수 있도록 강연회를 개최하여 2달에 한번씩 연합적인 모임을 갖는다.

6. 조직사업·재정사업

전국적으로 지회조직을 확장하고 회원 배가운동을 한다. 기존 지회를 적극 협력 후원하여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한다.

7. 장학사업

장학생을 선발하여 연4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속해있는 학교나 교회에서 절제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뒷받침한다.

8. 선교사업

국내 선교기금을 계속 모금하고 성경공부를 지도한다. 인도네시아에 매월 선교헌금을 보낼 계획이다.

9. 공보출판사업

절제운동에 필요한 책자와 팸플릿등을 출판하여 보급한다.

대한여학사협회

1. 계속교육 여학사교실

계속교육의 일환으로 전반기에는 음악에 관해, 후반기에는 미술에 관한 강연회를 주1회 개최한다.

2. 영어공개토론회(KAUW Forum)

전반기의 주제는 Our Common Future: Facing the Issues로 세계 주요일에 미국문화원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내용은 Ecology(1월19일), Technology(2월16일), Communication(3월16일), Human Relations and Moral Responsibility(4월20일).

3. 운영노인학교

60세 이상의 할머니를 위한 교육으로

건강관리, 취미생활, 특강, 국악, 가요, 견학, 소풍, 고전무용, 수학여행, 레크리에이션, 봉사활동에 관한 교육을 주 1회 회관에서 실시한다.

4. 출판사업

격월간으로 협회소식을 발간하고 홍보용 팸플릿을 간행한다.

5. 지부와의 유대강화

본부, 지부 합동 임원연수회를 갖고 지부를 방문하여 유대를 강화한다.

6. 장학사업 및 봉사사업

대학교 4학년 여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불우한 이웃돕기 사업을 실시한다.



간호행정 세미나 - 간호협회



금주금연 캠페인 - 기독교여자절제회

대한조선협회

1. 조선교육 및 자질향상

학술대회 현장 사례발표를 갖고 보수교육을 연 10시간 이상 실시한다. 조선사의 국가시험제도에 대비해 국시에 상문제집을 발간한다.

2. 회원의 권익보장

양면적 소지자 처우 개선책을 연구한다.

3. 조선소 운영 활성화

개업조선사의 합동조선소 운영을 유도한다.

4. 모자보건사업

무료산원 운영 및 매월 15일 무료진찰을 실시한다.

5. 가족계획사업

각 지부 및 중앙회에서 피임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피임기술 권장사업을 전개한다.

6. 지역주민 연계사업 활성화

보건강사를 활용하여 건강교실을 양성화하고 영유아 건강지도 및 성교육, 미혼모 상담을 실시한다.

7. 조직강화

중앙회 및 지부 조직 강화를 위해 정



조선사 보수교육 - 조선협회



여성의학 교육 - 여성문제연구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1. 금주금연 사업

흡연과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일깨우는 계몽운동으로 금주금연 강연, 카렌다 및 팸플릿 배부를 통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2. 순결평화 사업

여성의 순결과 평화의 고귀한 정신

을 위하여 교육하고 봉사하며 순결·평화·절제 정신을 널리 보급 선도한다.

3. 사회봉사 사업

군인, 병원, 교아원 등 불우한 이웃을 돕고 사회피폐풍조를 없애기 위해 전력한다. 절제회 새마을 유아원을 계

'89년도 사업계획

관 및 지부회칙 검토, 중앙회 및 지부 행정실무자 연수회와 지부총회를 지원하고 참석한다. 조산소 지도감독을 강

화하기 위해 중앙지도 감독반 및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성문제연구회

1. 연구 및 교육사업

여성운동의 방향 및 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을 위해 3월, 9월 두차례에 걸쳐 임원연수회를 갖는다.

바람직한 유아교육을 위한 여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교사연수회를 갖고 유아교육종사자 소그룹 모임을 가져 교육자료개발 및 정보교환, 여성의식을 고

취시킨다.

성차별 사례수집 및 조사, 소비자교육, 시민교육을 실시한다.

2. 복지사업

주변지역 대민 봉사사업으로 유아원과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한다.

중앙부인회

1. 잠재능력향상사업

여성들의 잠재능력향상을 위해 중앙 자수교육을 하고 이를 기초로 한 자수 대회, 회원 바자회를 개최한다.

2. 경제능력사업

생활이 어려운 여성을 위해 기계자수·양재·홈패션·한복짓기 교육을 실시해 취업 또는 부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3. 권익옹호사업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소비자교육 및 시민교육, 경제교육 등의 사회교육과 교양강좌를 실시한다.

4.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

취업하고 있는 저소득층 부녀자의 어린이를 돌봐준다.

5. 회관건립 추진 및 지부확장 사업

회관건립 추진과 지부확장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 법률구조사업

법률상담, 화해조정, 소송구조, 소송서류 대서를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

한다.

2. 지부설치 및 지원사업

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원·청주·대전·충주·인천·여주·목포·울산·강릉·원주에 국내지부를 설치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볼티모어·뉴저지·타코마에 국외지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부 직원훈련 파송 및 재훈련 사업과 지부 연합체 결성 및 유대강화를 도모한다.

3. 혼인부조사업

혼인당사자를 대상으로 혼인준비 교육을 실시하고 무료결혼식 거행, 혼인신고서 작성과 제출, 지속적인 상담 및 후견활동을 통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교육사업

가족법, 재산법, 세법, 형사법 강좌를 정기적으로 열어 법률계몽활동을 벌인다. 고부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머니학교를, 노인문제 프로그램으로 할머니·할아버지학교를 운영한다. 사별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혼자 가정을 꾸려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러기교실을, 결혼을 앞둔 남녀 대상으로 혼인준비교실을 운영한다. 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공개강좌와 어린이 글짓기 및 청소년 진로지도 등에 관해 자녀교육강좌를 실시하며 법률상담요원 교육도 실시한다.

5. 탁아소 사업

서울 만리동에 영세가정의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무료 탁아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6. 조사연구사업

가정·여성·가족법·인권·청소년·노인문제에 관한 각종 자료조사, 분석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상담사례 통계 및 분석을 계속한다.

7. 도서관 운영

가정, 여성, 법률, 인권관계 전문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다.

8. 출판홍보사업

법의 생활화 및 준법정신 함양과 법

률구조사업에 대한 출판 및 홍보사업을 전개한다.

9. 창립33주년 행사 개최

창립33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 및 기념강연회를 개최하고 외조공로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10. 기타

가족법 개정운동을 추진하고 인권주간 기념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조직 및 기구개편, 사업기금 확충방안을 모색한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1. 소비자보호연구

소비자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시민·모니터·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며 조사연구 및 모니터 활동, 간담회, 상품테스트, 실량검사, 시장가격 비교 조사 등의 활동을 연중 전개한다.

2. 신사임당 기념행사

제21회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로 예능대회 및 신사임당 수상자 추대식을 거행한다. 신사임당상을 슬기로운 한국여성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여성 평생교육장으로서 사임당 학당을 운영하며 신혼주부학당도 운영한다.

3. 무악새마을유아원

영세민 자녀를 위탁받아 학령전 아동의 예술교육 및 지능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4. 보식아동사업 및 원호사업

30명의 아동에게 매월 급식비를 지

급하며 원호의 달 기념행사, 일선장병 위문 및 땅굴 견학, 우체국 및 소외직업인, 기타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실시한다.

5. 무료직업안내사업

일일파출부, 파출요리사, 간병인, 산모조리인, 탁아모, 주부 시간제 취업, 주부판매원, 주부모니터, 청소년 무료 직업알선을 한다.

6. 캠페인

푸른서울 가꾸기, 아름다운 내집 가꾸기 캠페인과 관혼상제 간소화 캠페인, 저축증대 캠페인을 펼친다.

7. 각종 강습

한글·한문서예, 묵화, 원예, 꽃꽂이, 양재, 홈패션, 손뜨개, 요리, 매듭, 봉제사, 인형, 다례, 사진, 생활예절, 생활영어 등의 강습을 실시한다.



동원지수 교육-중앙부인회



거제지수 재능-가정법률상담소



신사임당 기념행사-주부클럽

8. 주부노래배우기 운동

주부들로 하여금 노래를 통해 즐거움과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래배우기 운동을 전개한다.

9. 생활관

전통예절과 생활규범의 장으로 생활관을 운영한다.

'89년도 사업계획

10. 바자회
매주·갯갈·일반관 바자회를 갖는다.
11. 훌륭한 아버지상 시상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훌륭한 가정을 이끌어간 남성에게 시상한다.
12.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교육
통일연수 교육, 정보화시대에 따른

정보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13. 기타

1989년을 영화·잡지·비디오·만화 등의 음란·나체·폭행 추방의 해로 정하고 캠페인을 벌이며, 주부의 정치, 경제의식을 강화하고 주부가사노동 인정을 위한 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다.

2. 국제관련

국제연맹 및 관련 국제단체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가진다.

3. 공보출판

계간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며 20년사 편찬, 브로슈어를 발행한다.

4. 문화교육사업

소비자로서의 권리의식 고취를 위해 시민교육을 실시한다.

5. 재정관계사업

수익사업을 위한 활동을 연구하고 추진한다.

6. 기타

진로지도사업을 실시하며 세계총회 참석을 준비한다.

가톨릭여성연합회

1. 지도자 양성 및 훈련

자체 계획에 의거한 각본당 여성대표자 연수회와 지도자양성 훈련을 실시하고 타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및 실무자 훈련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능을 강화한다.

2. 교육문화사업

행가운협회의 협조를 받아 가톨릭적인 가족계획 지도자훈련 및 지도 계몽과 가정성화에 대한 강좌를 마련한다. 이밖에 성경반, 외국어 교실을 개강하고 연1회 피정, 이동강좌와 매월 1회 정기월례강좌를 개최한다.

3. 후원회 사업

충주성심학교 학생 교육비를 보조하고 전국연합회 후원을 한다. 또한 교구

청 성소국 신학생 1명을 후원한다.

4. 홍보활동

연2회 회보를 발행하여 회원 및 관계기관에 배부하고, 언론기관을 활용하여 활동을 소개한다.

5. 봉사활동

매주 화요일 불우이웃돕기 노력봉사를 실시하며 회원의 일손을 활용하여 수익을 제작, 열가로 제공하며 이익금은 불우시설에 전달된다.

6. 국제친선평화증진

국제적인 유대를 위한 공동행사에 참여하고, 다른나라 가톨릭여성의 활동을 알기 위하여 세계협회, 아시아 태평양지역본부와 교류를 갖는다.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1.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여성 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타단체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실시

한국부녀복지연합회

1. 부녀복지세미나

부녀복지사업의 향상을 위한 체계 및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녀복지시설장,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5, 6월 중에 세미나를 개최한다.

2. 부녀복지시설 청소년수련회

부녀복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상호협동정신을 도모한다는 목적하에 부녀복지시설 청소년수련회가 8월중에 실시된다.

3. 미담사례집 발간

부녀복지시설 아동들의 내적 욕구 표현을 통한 건전한 성장과 사회 각계각층에 부녀복지시설을 홍보하기 위하여 미담사례집을 발간한다.

4. 신문판매사업

연합회 회관전립 기금마련 및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과 불우청소년 선도를 위해 신문판매사업을 한다.

5. 회원간담회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동시에 신문판매 청소년 저축우수자를 표창한다.

6. 국제교류

제21회 부녀복지세미나에 일본의 모자복지협회 회원을 초청하는 한편 일본에서 개최되는 모자복지연구대회에 참석한다.

한국여성항공협회

1. 한일여성항공 심포지움

제15회 한일여성항공 심포지움을 서울에서 개최한다.

2. 항공강좌 및 견학

여성항공협회 전회원의 항공강좌 및 현장 견학이 연중 실시된다.

3. 비행대회 개최

매년 5월에는 공군 참모 총장배 전국 남·녀 모형비행대회가 열리고, 전국 남·녀 대학생 고공 낙하 훈련과 전국 남·녀 행글라이딩 한강 축제가 주요 행사로써 여항의 이미지를 일반인에게 구현하는데 큰 몫을 한다.

4. 장학사업

항공계통을 전공하는 여대생 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5. 홍보사업

매월 항공정보를 발간한다.

한국지수협회

1. 해외동포 기술지도

동경에 있는 교포회원들에게 기술지도차 지부장 2명을 3월경 파견할 예정이다.

2. 해외전시

4월중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청홀에서 한국전통자수 전시회 및 강습회를 갖는다.

3. 국내전

롯데호텔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한국우먼스클럽

1. 사진전

청소년회원들의 해외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갖는다.

2. 복지사업

결연고아원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낸다.

3. 교양강좌

청소년들의 교양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여성대학 교양강좌, 강습을 실시한다.

4. 청소년국제교류대회

청소년대표와 지도교사가 국제교류대회에 참석한다.

5. 소비자보호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예방책을 주제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

6. 농장실습

가나안 농장을 견학하고 농장실습을 통해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는 워크샐을 가진다.

7. 기타

'89년도 사업계획

회원상호간의 친목, 클럽에 관한 건의와 평가회를 겸한 연말모임을 가지

며 회원의 소식을 알리는 회보인 '상아지'를 발행할 계획이다.

한국여성문화생활회

1. 여성안보 소양교육

정회원 및 주부를 대상으로, 국토통일원 교수를 초빙하여 반공의식에 관한 안보교육을 실시한다.

2. 강습

가정의 미화작업을 통해 변화있는 생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내장식강좌를 갖는다. 또한 의상과 악세사리, 구두, 가방 등을 조화되게 하는 강좌 및 다도강습, 직물공예강습, 에터렛강좌를 실시한다. 이밖에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중국어, 일어, 영어회화 강좌도 실시한다.

3. 봉사활동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청소년 가장 및 양로원, 고아원을 방문한다.

4. 전시회

직물공예 및 섬유예술회원의 전시회를 갖는다.

5. 국제문화교류

자유중국 광무, 인애합창단 및 부녀회원과 문화교류를 갖는다.

국제존타서울클럽

1. 봉사사업

불우이웃돕기, 여군단 위문, 국제 봉사사업, 모범장병위문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2. 국제대회 참석

12월 인도 마두라스에서 열리는 존

타인터내셔널 17지역 총회에 참석한다.

3. 창립기념행사

'존타의 밤' 행사를 겸해서 회원이 각 1명씩 초청하여 존타를 알리는 특별행사를 거행한다.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1. 예배

매주 목요일 샘바위회관에서 예배를 드리며 부활절 기념예배와 성탄예배를 갖는다.

2. 구제사업

서대문구 홍천동에 있는 베데스다 결핵 수양원과 대전 천양원 고아원을 위문한다.

3. 기타

이사들의 신앙수련회를 가지며 선교지인 '샘바위'를 매월 5,000부씩 발행한다.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1. 국립묘지 및 현충탑 참배

매월 1일 회장, 지부장 및 임직원들이 국립묘지 및 현충탑을 참배한다.

2. 상부상조활동의 전개

70세이상의 고령회원에게 대한 위안잔치와 불우회원 및 병상회원 위문을 한다.

3. 호국보훈의 달 행사

제34회 현충일 행사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실시한다. 국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호국정신양양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보훈병원에 입원 가료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문·격려한다.

4. 6·25참전비 순례

제7회 6·25참전 UN16개국 참전비 순례참배를 실시한다.

5. 장한 어머니상 시상

자녀를 훌륭히 성장시킨 회원과 지역사회발전 및 각종 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자녀를 둔 회원을 발굴·시상한다.

6. 안보태세 확립 및 화합

임직원 및 각 시도 지부장, 사무국장 등을 대상으로 안보태세 확립과 회원간의 화합조성을 위한 행사로 산업시설, 관문점 및 땅굴견학, 간담회를 실시한다.

7. 봉사활동

각 시도 지부장 주관으로 관내 소년소녀 발굴 생계 및 기타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보훈병원에 입원 가료중인 국가 유공자를 위한 거즈집기 봉사지원활동, 일선장병위문 및 보훈원을 위문한다.

및 구청 선도요원으로 참가한다.

6. 약대 졸업생 오리엔테이션

전국의 20개 약학대학 졸업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7.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운동에 참여하여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킨다.



대한약사회여약사회

1. 여약사 장학사업

장학기금을 확대하여 연20명의 약대재학생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2. 전국여약사대회

제16차 전국여약사대회를 전라북도에서 개최한다. 여약사대상 시상, 일반표창, 특별강연, 세미나, 친교의 밤 행사, 전시회 등의 행사로 진행된다.

3. 가족계획사업

가족계획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가족계획 지정약국의 사후관리 및 확대, 지정약국에 대한 교육 및 계도, 홍보 및 상담자료 보급에 주력한다.

4. 회원교육

여약사 임원급 교육 및 좌담회를 개최한다.

5. 불우이웃돕기 및 청소년선도

무료부약사업을 전개하며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불우이웃돕기 사업도 추진한다. 또 여약사회원으로 구성된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각급학교



'89년도 사업계획

8. 기타

회원의 친선을 도모하고자 각 지부 및 서울각구 분회 대항 탁구대회를 가

지며 여약사 가족초청 간담회도 실시한다.

4. 회원지도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강습회를 갖는다.

5. 간행물 발간

각종 식생활 및 영양개선 계몽을 위해 포스타카렌다, 요리카렌다, 요리팝프렛을 발간한다. ◆

우리웃협회

1. 작품발표회

작품발표회를 통해 한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한복바로입기 운동을 확산시킨다.

실시하여 한복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하고 한복의 멋과 맵시를 국내 및 해외에 알린다.

2. 교육사업

우리웃 바로·짓고 바로 입기 강습을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1. 계몽강습회

식생활 및 영양개선 계몽과 국내 부족 식량 자원을 활용한 강습을 전국 일원에서 연중 실시한다.

독을 위한 통신교육을 실시한다.

3. 식생활 행사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수산물 식량화를 위한 강습 및 전시, 시식회를 전국에서 개최한다. 학교자모와 급식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식생활개선 협력학교 자모 식품요리교육, 축산물요리강습 및 전시 시식회, 콩식품을 이용한 새로운 요리발표 및 시식회, 제5회 닭고기 요리솜씨대회를 개최한다.

2. 전문조리기능사 양성 교육

식생활개발연구회 부설 조리기능훈련원을 통해 한식과 양식조리기능사를 양성한다.

또한 국비조리기능훈련생 양성을 통한 실업자 고용촉진과 조리기능자격취



한복작품발표회 - 인도네시아 - 우리웃협회



한국여성개발원 - 식생활개발연구회

이달의 여성계동향

해를 넘기며 계속됐던 여성개발원의 노동쟁의가 2월들어 신임 원장의 취임과 함께 제지리를 찾기 시작했고 여성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남녀평등고용법개정을 위한 여야4당 초청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한국부인회, 주부교실중앙회 등에서도 사회와 여성의 관심을 하나로 잇는 세미나와 토론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경자 (매일경제신문 문화부 기자)

정무제2 장관실 '89년 주요업무 확정

정무제2 장관실은 '89년도 주요업무를 ▲대여성계 정무활동의 강화 ▲여성권익의 실질적 향상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 ▲여성정책 추진체제의 내실화 ▲노인문제 종합방안의 구현 등으로 확정했다.

대여성계활동 강화부문으로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도모, 주요정책과제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며 주요여성문제도 정당과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감정해소를 위해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수용자세 대비, 건전한 여성문화와 시민의식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펴나간다.

또 여성권익향상을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폭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취업의 기회균등도 실현해 나갈 방침이며 취업여성을 위한 탁아제도확립과 농어촌여성 실태조사 및 노인문제의 중·장기 집중연구 등을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

한국여성개발원 김윤덕 원장 취임

민정당 국회의원 김윤덕씨(53세)가 한국여성개발원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8·9·10대 3선의원을 지낸 김원장은 여성개발원을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여성문제의 모델로 정착, 개발원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취임 첫 일성.

그간 문제시됐던 운영문제는 개발원 식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연구기관의 성격뿐 아니라 활동하는 개발원으로도 자리잡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5공화국출범과 함께 정치활동이 규제됐던 김윤덕 원장은 6공화국에서 민정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유흥근씨와의 사이에 6남매를 두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대한 정당초청토론회 개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월11일 종로성당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대한 정

당초청토론회를 개최,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계와 여성계 및 일반인들의 여론을 환기시켰다.

한국여성민우회 이경숙씨가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필요성을 설명한 후 이강희(민정당) 이상수(평민당) 노무현(민주당) 김병용(공화당) 의원 등이 4당입장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야3당은 이 법의 개정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으나 민정당은 어느정도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평화민주당 인신매매와 성폭행 근절대책 세미나 개최

평민당은 2월2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인신매매와 성폭행 근절대책 세미나'를 열고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펴기로 결의했다. 이 세미나는 부녀인신매매, 강간 등을 중심으로한 성범죄, 성폭력의 사회구조적 배경에 관해 한양대 심영희 교수의 주제발표를 가진 후 인신매매와 성폭행 범죄현황 및 사례발표, 근절대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달의 여성계동향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마약류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주부교실중앙회는 2월14일 한국의환 은행 본점에서 「마약류 근절을 위한 진단과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마약사용은 불과 2·3년전까지만 해도 기지촌 유흥업소종사자 등 특수한 직업계층에 국한되었으나 최근 들어서 주부나 학생·회사원·농어민까지 확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현황」에 대해 정용진 보사부 마약과장이 주제발표하고 「마약류 사용의 사회심리적인 원인」 (이훈구 연대교수) 「마약류 사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박관용 의원) 등이 발제강연돼 마약의 폐해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마약은 60년대는 아편, 70년대는 대마초 흡연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80년 들어서는 히로뽕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용인구의 급증뿐 아니라 여성과 청소년층의 사용이 급증, 가정과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처벌위주정책에서 벗어나 마약전담기구를 설치,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예방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부인회 건전가정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한국부인회는 「건전가정정착을 위한 미래가정과 여성 심포지엄」과 제26차 전국대회 및 10차 임시총회를 2월22, 23일 양버서더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현대 가족사회가 급속한 산업화로 핵가족마저 해체 위기를 맞게됨에 따라 다가오는 2천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형태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 부부간의 역할갈등이나 가족외적인 조건 등을 극복하고 이에 대한 수용태세를 갖춰야한다고 논의됐다.

한편 임시총회에서는 박금순 회장이 유임되고 60여명에게 감사패 및 공로패가 주어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일본국왕 장례식 조문사절 파견에 합의

여성단체연합은 정부가 히로히토 일

본국왕 장례식에 조문사절을 파견키로 결정함에 대해 2월22일 항의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파고다공원에서 항의피켓시위를 벌였다.

여연은 히로히토가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많은 아시아국가들을 짓밟은 전범자임에도 자신의 죄과를 단 한번도 한국인에게 사과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그의 장례식에 국빈급 조문사절을 파견하는 것은 제2의 신사참배며 현정부의 비자주적인 성격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연은 또 성명서에서 정부의 조문사절파견중단 및 일본정부의 사과,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 외국인 등록법의 즉각적인 폐지도 촉구했다.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과 직업」책자 발간

여성개발원은 「여성과 직업」 책자를 발간했다.

「여성과 성차별」 「현대사회와 여성의 역할」에 이어 여성의식교육자료로 발간한 이 책은 직업의 세계를 비롯, 여성의 유망직종, 여성과 직업관, 취업여성의 평등과 보호 등 여성취업의 현황



평민당 주최 인신매매와 성폭행 근절대책 세미나



한국부인회 주최 건전가정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한국여성단체연합 일본국왕 장례식 조문사절 파견 합의 반대시위

및 전망을 10장에 걸쳐 담고 있다.

부록으로 권리구제방법과 신청절차, 직업정보를 실었다.

주부클럽, 주부교실 등 매주바자회 개최

장담그는 철을 맞아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전국주부교실중앙회가 연례 사업으로 벌이는 매주바자회를 열고 있다.

주부클럽과 주부교실은 매년 백화점에서 매주바자회를 개최했으나 금년엔 백화점의 속임수 바젠세일에 따른 불매운동전개로 장소를 각 단체 회관으로 옮겼다.

주부클럽의 매주바자회는 2월23~3월31일까지 주부클럽 사무실인 새로나 백화점604호에서 개최된다.

재래식메주는 한말(소)에 1만2천5백원, 재래식메주가루와 막장메주가루는 1kg에 각 2천2백원이며 개량메주는 1kg에 1천5백원, 옛기름은 5백g에 8백원하며 떡메주는 한말(소) 1만5천5백원, 떡메주가루는 1kg에 2천7백원에 판매하고 있다.

주부교실중앙회는 2월27~4월10일까

지 주부교실 회관에서 매주바자회를 개최한다. 가격은 재래식메주(소) 5당이에 1만2천5백원, 재래식메주(대) 4당이는 2만3천5백원이며 떡메주 3당이(대)는 8천8백원에 판매중이다.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청소년과 평화」토론회 개최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2월25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평화의 전달자 스카우트대토론회」를 가졌다.

한국꽃꽂이협회 제19차 정기총회 개최

꽃꽂이협회는 2월27일 하이아트호텔에서 제19차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식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수혜씨가 새이사장으로, 박금자·이준실씨가 부이사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여자는 외모로만 평가받는 존재인가

본회 매스컴모니터회

I. TV프로그램 부문

1. 유머 일번지 (KBS 2TV 매주 토요일)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코미디물에 여성을 외모 중심으로 평가해 못생긴 여자는 무시하고 벌레처럼 피하는가 하면 예쁜 여자의 경우에는 또 완전히 희롱의 대상으로 놓고 남자들이 한번씩 괴롭히는 것으로 억지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그 예로 「영구야 영구야」의 2월 26일 방영분에서는, 영구가 일본 순사들과 함께 기생집엘 가게 됐는데, 못생긴 기녀에게는 '욕'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서로 떨어져 앉으려고 하고 또 예쁜 기녀에게는 서로 앉으려고 때리고 밀치는 모습들이 성인사회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민망했다.

또한 3월4일 하루 방영분만 보더라도 「사랑의 아파트」 코너에서는 여자를 걸어준다면서 소파위로 올라가 여자의 젖가슴을 내려다 보는가 하면, 여자를 만져 보기 위해 남자 셋이서 쫓고 차

레로 강도로 변장해 괴롭히는데도 여자는 계속 "어머머" 소리만 지르면서 당하고만 있어서 수동적이고 학대받는 여성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또 「고독한 사냥꾼」 코너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주인공이 계속 여자를 사냥하는 것이 주제인데, 테스트 랑안의 여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못생긴 여자에게는 "욕, 괴롭구나"고 하면서 예쁜 여자에게는 카메라를 들고 접근해 "여자는 카메라에 약하지", "내앞에서는 벗어도 괜찮아"하는 식의 혼잣말을 통해 음란한 생각을 그대로 어린 시청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있다.

또 「청춘을 돌려다오」 코너에서는 할머니조차도 예쁜가 아닌가로 인간값이 매겨지는지 못생긴 할머니를 징그럽고 귀찮다는 듯이 피해다니는 것으로 억지 웃음을 쏙내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어린이들이 여자친구들을 대할 때도 동등한 여자에만 보면 생각없이 코미디화 해 비하할뿐 아니라 여자는

외모가 최고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

2. 한지붕 세가족 (MBC 3/5)

「남과 여」라는 부제로 방영된 이 날 방송분은 평소의 이 드라마 이미지와 맞지 않게 성별 고정관념에 편승한 결론을 내려 시청자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현주아빠와 현주가 야구글러브를 몰래 사놓고 엄마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것은 공치가가 아닌 현주아빠의 성격에도 맞지 않으며 석이엄마가 석이에게 벽걸이 인형을 사줬다고 아빠가 "부권에 도전하지 말라"며 상의도 없이 현주에게 그 인형을 그냥 쥐버리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평소 아내나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성(性)에 따른 역할분담에 임하지 않아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석이아빠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 태도였으며 여자는 안전하게 남자는 씩씩하게



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3. 만화영화 「도단이」 (MBC 3/1)

아파트에 살면서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어린이의 심정을 잘 그려냈고 가난한 동학이를 도와주는 마음이라든가 할아버지를 통해 어린이의 꿈 등이 실현되는 과정을 잘 그려낸 좋



은 작품이었다. 그러나 도단이의 쓸쓸함을 표현하기 위해 엄마가 복덕방에 있으면서 "땅 10만평을 사내야지. 5만평만 갖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한다거나 미장원에서 "국어는 몇점? 산수는? 자연은?"하고 물다가 한개 틀렸다고 하니 "아이 신경질 나. 그것도 모르니"하고 전화를 딱 끊는 등의 장면, 또 아빠가 술집에서 도단이와 통화하다가 노래를 부르는 도단이의 노래를 끝까지 듣지 않고 "바쁘다"고 끊어버리는 등의 장면은 어린이의 쓸쓸함을 묘사하기 위해 어른들의 생활을 지나치게 너무 왜곡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반장선지를 앞두고 어머니가 전화로 학우어머니들에게 돈을 미끼로 "안팔어 주면 가만두나 봐라"하는 식의 장면을 보여준 것은 어린이로 하여금 반장이 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것 같다. 오히려 어른들 대상의 프로그램에서 부모의 태도를 반성해 보는 자료로는 적합할지 모르나 어

린이들이 보는 만화에 담기에는 즐거리가 부적합한 내용들로 생각됐다.

4. 수중의 신비 (MBC 3/3)

바닷속의 생물들의 생태를 다룬 이 다큐멘타리는 천편일률적인 일반 드라마에 식상해 있는 시청자에게 흥미진진하고도 아름다운 화면과 함께 정보도 제공해 주는 것이어서 대단히 좋았다.

분위기로 계속치레 눈을 반쯤 감고 남자어린이에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또 남자어린이가 무릎을 꿇고 꽃을 갖다 바치는 장면 등이 어른의 시각으로 어린이를 왜곡시키는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다.

2. 테디 - 한국 외코루 (여성잡지)

부엌에서 커피마시는 여성이 스웨터를 반쯤 벗어제끼고 속옷바람으로 서 있는 모습은 보기에 매우 부자연스럽다.

3. 홈 텍스 - 유한양행 (신문, 잡지)

콘돔광고에 봉대를 감은 손가락을 사용해 외설스런 느낌이 들게해 거부감을 주므로 시정해주시기 바란다. ♣

II. 잡지 광고 부문

1. 해피아이, 톰키드 (신문, 잡지)

여자어린이가 어른 뺨치게 퇴폐적인



근로여성이 알아야 할 법규 ⑮

윤자야 (공인노무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 규정은 이러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규정해 두고 있고 이에 의해 각종 보상을 근로자에게 행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지난호에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으므로, 이번 호에서는 재해보상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의제기의 대상

재해보상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다.

재해를 당했을 때 우선 신청하는 요양승인신청에 요양불승인 처분이 되어 재해가 업무상 사유인지의 여부를 다룰 수도 있겠고, 휴업보상(휴업급여)에 있어 평균임금액에 다름이 있을 수도 있고, 장해보상에서 장해등급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88조 1항을 보면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라고 하여 보상 실시에 관한 이의의 종류로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양방법, 보상금액, 기타'를 열거하고 있어 보상

에 관한 모든 사항이 이의제기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의제기의 절차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재해처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인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것인지 법적용에 관한 문제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88조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심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심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 근로기준법상의 처리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 규정은 이러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규정해 두

고 있고 이에 의해 각종 보상을 근로자에게 행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직접 보상(지불)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노동부에의 진정이다.

진정이란, 행정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 그 관청에 위법사실을 알려 시정을 촉구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산재근로자는 사용자의 보상 의무불이행을 노동부에 알려 노동부로 하여금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즉 재해보상에 대한 정당한 처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진정이며, 업무상 재해에 대해 요양거부를 한 경우 등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진정으로 사건이 처리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해등급이라든가 재해원인에 대한 다름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에는 진정만으로 일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88조(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다시 위의 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의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말하고, 심사 또는 중재요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건을 처리하게 된다.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든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한다.

2. 산재심사법에 의한 절차

산재심사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급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심사와 재심사) 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산재보험으로 가름하며, 산재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주관하므로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 즉 원처분청(실제로 노동부지방법사무소)을 상대로 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위와 같이 독립된 법률로 정해두고 있는 것이다.

심사의 청구는 보험급여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처분을 한 관할 지방사무소에 하되 지정양식(지방사무소에 있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심사의 청구 또한 원처분청을 상대로 하며 청구방법 또한 심사청구와 동일하다.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재관청의 청구와 같이 시효는 중단되나,

원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위의 두가지 이의제기 절차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참조) ※ 88. 11월호 내용중 1~4인 사업장은 비적용 사업장으로 정정합니다.

구분	① 민원처리	② 노동법상 처리		③ 노동법상 처리		④ 비고
		대 상	제출기관	대 상	제출기관	
근로기준법	노동부에 진정	노동부장관	관할 지방사무소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행정소송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심사관	"	산재심사위원회	관할 지방사무소	"





준거집단을 통해서 본 여성의식 발전의 장애

-여성문제연구회

여성문제연구회는 여성의식발전에 장애가 되는 근본적 요인을 밝혀 여성문제해결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준거집단을 통해서 본 여성의식 발전의 장애'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계층별 남녀의 준거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이 연구의 주요 과제는 첫째, 준거집단을 통해 본 중산층 여성, 중산층 남성, 빈곤층 여성, 빈곤층 남성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여성의식발전의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장애제거를 위한 출발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은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내용을 묶어 발간한 연구지의 결론부분을 재수록한 것이다.

1) 경제적, 성적으로 하위계층에 속

여성의 의식발전의 장애요인은 복잡적이고 순환적이다. 중산층 여성의 의식변화 뿐만 아니라 각 계층의 남녀의식이 변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다.

하는 빈곤층 여성들은 물질만능의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중산층으로의 계층상승적 준거로 인해 여성의 노동과 성을 2차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남성문화 유지의 행위자적 기반이 되고 있다.

2) 빈곤층 여성이 중산층 여성을 준거로 삼는 이유는 중산층 여성들이 은폐된 삶을 영위하고 있음에 있다. 중산층 여성들이 은폐된 삶을 영위하고 빈곤층 여성들을 소외시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중산층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절 이데올로기,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여성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내면화시키면서 남성에 대한 열등의식과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을 동시에 내면화시켜 왔다.

② 중산층 여성들은 결혼으로 인하여 자신의 무능력을 인식하는데 이 때 빈곤층 여성들을 소외시킴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내면화 되어온 우월의식의 유지기반으로 삼는다.

즉 여성노동과 성의 비하를 준거로 삼아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와 정절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를 자신들의 특권으로 유지시킨다. 그러나 중산층 여성들이 우월의식의 유지기반으로 빈곤층 여성들을 소외시키는 행위는 한 남자에게 인정받는 의존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 여성들을 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식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것은 중산층 여성에게 역할 대안이 주어지지 않는 사회·문화구조에 근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에게 선택적인 삶을 주지않는 사회구조는 중산층 여성들을 남녀분리와 여성분리의 주체자로 이용하면서 남성문화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 여성들은 은폐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빈곤층 여성들은 허상의 중산층 여성문화에 준거하면서 여성들 스스로가 여성을 2차적인 존재로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여성의 의식발전의 장애는 여성들 스스로가 장애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다. 물론 근본원인은 여성에게 역할대안이 주어지지않는 사회의 이중구조와 남녀를 분리시키고 경제적 가치를 우선하는 남성문화구조와의 결합에 있으나 현 시점에서 문화체계 변화를 위한 행위자·주체자로서의 여성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여성들 스스로의 분리 행위는 비판되어야만 할 것이며 특히 가정에서부터의 극복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이는 여성 스스로가 의존심이나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성의 주체성이나 자신감은 결혼 후의 자각에 의해 갑자기 형성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어렸을 때부터, 특히 부모·형제관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임을 생각할 때 현 기존여성들의 여성통합의식을 위한 실천방안이 더욱 고무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여성의 의식발전의 장애요인은 복잡적이고 순환적이다. 중산층 여성의 의식변화 뿐만 아니라 각 계층의 남녀의식의 변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거개의 여성단체들이 중산층 여성만을 중심으로 의식화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중산층 여성의 의식화는 성과 계층의 인식하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는 빈곤층과 남성을 대상으로한 의식화 program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과도 동일한 문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부장제와 경제적기능의 결합체제가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억압하고 있음을 밝혀주는 많은 연구가 불가피하다.

결국 현 시점에서 볼 때 여성의 의식발전의 장애는 사회구조와 남성과의 관계는 간과하고 여성만을 부각시키려 했던 중산층 여성들의 반성으로부터 극복될 수 있다 하겠다. ♣



사회의 남녀차별 ②

영국을 중심으로

이등국민으로서의 여성

박은식 (자유기교기)

필자가 영국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던 때의 일이다. 여성운동내지는 여성노동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필자는 사라 힐즈(Sarah Fildes)라는 여교수로부터 '성차별과 사회(Sexual divisions and society)'라는 강의를 수강하였다. 특별히 '성별(Sexuality)'이라는 주제를 공부하는 날, 사라 교수는 학생들에게 비디오를 먼저 본 후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자고 말했다. 그 비디오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날 주인공 여자는 남편과 함께 남편 직장동료의 파티에 초대되어 갔다. 항상 남편과의 관계에서 거리감 내지는 소외감을 느껴오던 이 여자 주인공은 이 파티에서도 여자들은 남자들을 보좌하는 존재에 불과할뿐 파트너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만다. 복직대는 파티장에서 남편은 어디론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사라져버렸고 혼자 남은 주인공은 공상에 빠져들어 간다. 그녀는 공장속에서 여자와 남자의 역할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여자의 일과 역할을 남편에게 부여하고 남편의 생활과 위치에 자기자신을 놓는다. 먼저 아침에 그녀는 쇼파에 기대앉아 신문을 보고있다. 남편과 아들은 부엌에서 아침식사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딸은 그녀의 옆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놀고 있다. 남편이 아침식사준비가 다 되었다고 그녀와 딸을 식탁으로 부른다. 식탁에는 아침식사가 모두 준비되어 있고 그녀가 식탁에 앉자마자 남편이 커피를 따라주고 아들이 수프를 덜어준다. 아침식사를 마치

고 남편은 식탁을 치우고 출근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돌아간다. 그녀는 여유 있게 자기방에 들어가 옷노래를 부르며 단장을 하고 출근을 한다. 그녀는 남편에게 손을 흔들고는 승용차를 몰고 직장으로 향한다. 남편은 그녀를 배웅한 후 자전거를 타고 직장으로 향한다. 직장에 도착하여 그녀가 사무실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자직원들이 타이프 혹은 계산기 등을 앞에 놓고 죽 앉아서 한창 업무에 열중하고 있다. 그녀가 자기위치에 가 앉자 한 남자직원이 결재판을 들고와 아주 정중한 태도로 결재를 받고자 한다. 대강 업무를 처리한 후 그녀는 신문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녀 앞에서 죽 앉아있는 남자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느라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었다. 그녀가 동료간부사원과 함께 - 물론 여자다 -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그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일을 하고 있던 남자직원들이 제각각 도시락을 들고 식당에 점심식사를 하러 나간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각기 서둘러 퇴근을 하고 있다. 여자간부사원들은 보기 좋은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는 반면 남자직원들은 회사 뒷편으로 돌아가 그곳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퇴근길에 오른다. 남자직원들은 곧바로 집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퇴근길에 슈퍼에 들러 반찬거리 등 가정용품을 사가지고 집에 간다. 집에 가서도 설 틈도 없이 부엌에 들어가 저녁식사를 준비한다. 주인공 여자는 이미 들어와 거실 쇼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TV를 보고 있다. 그녀의 남편은 부엌에서 저녁식사준비에 부산하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와 아이들은 TV를 보면서 쉬고 있는데 남편은 계속 바쁘게 일하고 있다. 세탁도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돈하고... 드디어 월급을 얻은 남편은 그녀와 아이들 틈에 끼어 잠시 휴식을 취한다. 그러나 곧이어 잠자리에 들기를 원하는 그녀를 위해 남편은 침실로 따라 들어와 그녀를 위해 잠자리를 정돈한 후 목욕실에 들어가 깨끗이 씻고 맛있는 잠옷을 갈아입고 화장수도 바르고 향수도 뿌리면서 외출을 가꾼다. 드디어 침실에 모습을 드러낸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그녀 앞으로 마치고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하는 태도로 조심스레 다가온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므로써 비디오는 끝났다.

비디오감상 후 곧 이어진 토론시간은 모두 8명의 학생 가운데 필자까지 포함한 3명의 여학생들과 사라 교수, 그리고 5명의 남학생간의 대립적 논쟁이었다고 하겠다. 남학생과 여학생측의 주장을 각각 종합해보면 남학생들은 비디오의 내용은 자연질서의 법칙에 어긋나며 인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타고난 성별에 따른 역할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여학생들은 비디오의 내용을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남성들의 태도는 남성위주의 사회관습에 젖어왔기 때문이며 우리가 사회의 관습이나 관념을 변화시키고 개선해나간다면 비디오의 내용처럼 여성들 중심으로 사회가 이끌어져 나가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날 토론을 통해 필자가 느낀 것은 아마 그곳에 있었던 사라 교수를 비롯한 여성들은 모두 느꼈겠지만 - 남성과 여성사이에는 결코 허물 수 없는 관념의 장벽이 놓여있다는 것이다. 남학생들은 모두 그들 스스로를 '여권주의자(Feminist)'라고 표현하는 남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다!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는 남성위주의 사회이다. 모든 사회질서와 관습 등은 남성을 중심으로, 남성들에게 이롭게 만들어져 운영되어왔으며 현재도 여전히 그렇다. 남성위주의 사회질서 및 관습은 모든 남녀차별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전호에서 언급한 가부장제적 권위주의와 생계책임자윤리도 바로 남성위주의 기존질서로부터 나온 산물들이다.

남성위주의 사고는 사회 기존질서나 규범의 곳곳에서 반영되어 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통념이 지배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성은 가정내에서나 직장에서도 책임자적 위치를 독점하고 여성은 거의 대부분 보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필자 자신도 비디오를 통해서 주인공 여자가 사무실문을 열고 들어설 때 남성들이 앞줄에 죽 앉아 집대 및 타이프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뒷편에, 그리고 중간간부실에서 여성들이 정적 결정이나 결재 등의 중요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어색하고 뭔가 틀린 것 같은 감을 느꼈던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남성본위의 기존질서 속에 젖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기존질서에 대한 도전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왔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또한 눈에 띄이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가적인 부가 축적되어 균등배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부터였다. 부의 편재에 대하여 국민들의 비판의 소리가 높아갈 때, 그래서 노동조합들의 입김과 힘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

고정관념과 기존질서를 무너뜨리고 남녀가 평등하게 존재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사회속에 구현해나가는 일은 어쩌보면 이상에 불과할 뿐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 교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은 불과 반세기 전만 하여도 이루기 힘든 과제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결코 좌절될 수 없다는 의지와 끊임없는 외침, 그리고 노력은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었다.



되었을 때 항상 약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던 여성들도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를 타고 그들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부르짖게 되었다. 이즈음 여성들은 경제적인 붐과 인력난이라는 배경아래 눈부신 사회진출을 이룩하여 노동조합내에서도 여성들의 비중이 크게 신장되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민의무교육제도의 혜택으로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여성들의 권리 및 평등의식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권익 및 지위향상을 꾀할 수 있는 자체적인 힘과 배경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러한 힘과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들을 규제하고 묶어오던 부당한 제도와 굴레들을 벗어버리고 개선시키려는 여러가지 모양의 노력과 운동이 60년대말 내지는 70년대에 크게 일어났다. 1차대전을 전후하여 활약한 때리 맥아더 여사의 염원이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균등한 취업 기회 보장' 등 산업사회에서의 남녀평등에 대한 소리가 크게 높아진 것은 60년대말 부터였다. 또 여성들을 모성적인 일에 묶어두고 이를 억이용해온 역사적인 사례에 대하여 여성들을 가사와 자녀양육의 부담으로부터 다소나마 해방시키기 위한 노력이 가족계획(Family Planning) 및 낙태허용캠페인(National Abortion Campaign)을 통해 전국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한 것도 60년대말이었다. 또 남자가 생계책임자이고 여자는 보조자라는 대전제아래 마련된 세제 및 사회복지제도 등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크게 일기 시작한 것도 바로 60년대말이었다. 70년대는 상기한 바와 같은 여성들의 지위 및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과 운동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도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이 통과되어 오랫동안 투쟁해오던 노동의 댓가에 대한 남녀평등이 실현된 것이 1970년의 일이다. 이 법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뒷받침해 주는 '남녀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이 1975년의 일이다. 또 근로여성들의 각종 권리 및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근로여성헌장(Working Women's Charter)'이 영국노동총(TUC)을 비롯한 산하 노동조합들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어 각 산업사회에서 노사교섭을 통해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70년대말의 일이었다. 또 노동당 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남성위주로 제정 운영되어온 세제 및 사회복지제도에 제동을 걸고 '생계책임자는 남자'라는 원칙에서 후퇴하여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생계책임자'라는 개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것도 바로 70년대말이었다. 또 여성해방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가족계획 및 낙태허용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노동조합내에서도 이를 사업계획으로 채택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도 70년대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캠페인과 더불어 가사와 자녀양육의 책임을 남녀가 공히 분담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된 것도 바로 70년대말이었다. 그래서 필자가 그곳에 체류하고 있었을 때(80년도 중반기) 많은 가정에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남자와 여자의 구분없이, 직장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보았다. 또 학교에서도 학부모면담시 부모 모두를 자녀를 위한 상담에 초청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은 운동적 차원에서의

개선노력과 그동안 수확된 적지않은 제도적 개선 및 이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존사회를 지배해온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 바꿔 말하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상대적인 열등의식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기존질서는 남성위주로 유지·운영되고있으며 이는 곧 남녀 불평등의 근본요인이 되고 있다. 비디오의 내용을 통해 느끼고 알 수 있듯이 지금도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속에서 불평등한 존재로서 살고 있다. 가사와 자녀양육의 부담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극히 부분적인 것만 대부분의 가사와 자녀양육의 책임은 여성들에게 있다. 한국사회와는 달리 영국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인격이 존중되고 부부동반이 생활화되어 있으나 남자와 동등한 수준과 입장은 아니다. 산업사회에서도 법적으로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고 남녀평등임금을 비롯한 각종 제도가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으나 실제로 여성들이 부딪치는 현실은 다르다. 여성근로자들은 대부분 하위직종 및 숙련도가 인정되지 않는 저임금군에 몰려있고 숙련도가 인정되는 직종과 상위직군은 거의 모두 남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인력을 관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간부직에서 여성들을 찾아보기는 영국사회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재미있는 예로 여왕과 여수상을 정점으로한 정부각료진 가운데 차관급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여성각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여성 스스로도 여성을 믿지않고 스스로 지위를 하락시키고 있는 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남성본위의 사회질서속에 너무나 침잠해왔기 때문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은 고정관념과 기존질서를 무

너뜨리고 남녀가 평등하게 존재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사회속에 구현해나가는 일은 어쩌보면 이상에 불과할 뿐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 교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은 불과 반세기전만 하여도 이루기 힘든 과제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결코 좌절될 수 없다는 의지와 끊임없는 외침, 그리고 노력은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실현가능성이 작은 것 같은 과제일수록 더욱더 큰 의지와 힘의 결속과 외침과 노력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모두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여성 운동과 사회의 남녀 차별은 이번 호로 끝을 맺고 다음 호부터는 박영혜 교수(숙명여대 불문과)의 집필로 불란서의 여성 운동을 연재합니다.



해외여성 ⑥

인도네시아 여성의 지위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법적인식은 1945년 공포된 인도네시아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수십 년이 경과해서야 실제적인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유엔여성10년'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과정에 가속적 힘을 주었다.

'78~'83년의 인도네시아 5개년개발 계획에서 처음으로 여성문제가 제기되었고 국가정책지침과 맞추어 남성과 동등하게 국가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위조정을 위한 특별한 국가적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가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중대시하고 국가기구의 조정담당기능을 맡기 위해 1978년 새 행정부서가 설치되었다. 이 여성운동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KOWANI 당시 퇴임회장을 이 행정부서의 수뇌인 최초의 차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녀는 제2차 임기중 같은 기능을 담당하면서 주장관으로 승진되었다. 11월2일 그녀의 사망으로 인해 1987년 11월20일 현재의 KOWANI의 장이 취임했다. 여성을 위한 이 정치적

의지는 비자발적 기구들을 포함한 여성을 위한 전 영역에 걸친 집약적 계획들에 의해서 증명되어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온, 특별히 문맹퇴치, 공식 비공식의 교육, 보건, 산아제한 등의 지역개발의 성공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은 바 크다. 많은 여성 조직체로부터 모집된(KOWANI 하나 의 조직에만도 2천만이 넘는) 수백만에 달하는 여성지도자들은 지난 10년동안 50%의 문맹률 감소와 인구성장을 제한, 유아사망률과 산모사망률 감소에

가정내에서 그리고 각 사회발전 분야에서 여성지위의 향상을 위해서 결혼(가족)법과 그밖의 현존 법률들에 대한 여성의 대중적 자각 역시 미래의 발전을 위해 절실하다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계 모든 분야에서 사회 각층에서 여성이 실제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협동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사회적 환경 창출이다.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수단으로서 여성의 현실적인 역할과 참여가 유엔개발계획과 유엔국제아동기금의 자료는 물론이고 국가보고서에서도 충분히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행정, 정치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도는 다음표와 같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못하다.

그러나 지역단위에서 여성대표는 적지 않다. 1986년 통계에 의하면 34명의 여성읍장과 3명의 지역대표가 정부조직의 구성원이며 '85년도 여성공무원 수는 '74년에 비하여 2.5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중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5.5%에 불과하다.

행정부문에 있어서는, 정부에 두명의 여성장관, 이슬람대학을 포함한 세

명의 대학교여총장, 한명의 여성대사, 특별히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각부서의 고위공무원들이 있다.

정치부문에서는 세계의 정당중 두정당이 83년부터 적어도 한명 이상의 여성이 최고지도자로 활약하였고 87년부터는 세정당 공히 여성들이 최고지도자로 또 조직의 각계층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

교육

1983년 5월 취학아동 의무교육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후 초급학교와 중학교의 여학생수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인구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심리학, 법학, 치의학 부문에 여성의 진학이 두드러지고 과학과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여학생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한 여성생물학자는 1986년 계획된 우주계획의 적하(積荷)담당 전문가로서 미국항공우주국 팀의 일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고용

고용부문에서 여성근로자는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대체로 여성의 낮은 기술과 교육수준으로 근로자의 대다수가 저임금층이다. 비록 무역과 서비스부문의 고용증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60%이상의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을별로 적절한 기술의 도입으로 농업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향상되고 가정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보건

유아사망률은 보건소의 시설확장과 보급증대로 1961년 1000명당 150명에서 1985년에 1000명당 90명의 비율로 줄어들었고 전국민보건의 해인 2000년에는 40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공공 보건서비스의 개선과 인근보건소의 감독하에 마을자치에 의해 운영되는 비공식종합보건국의 협조와 각 지역 보건소의 집약적 영양보급운동은 평균수명이 1960년 46.5세에서 1984년 55.9세로 연장되었고 지금도 계속 연장되고 있다.

장애물들

1984년 7월 인도네시아는 각종 여성차별제도폐지를 위한 유엔협약을 인준하여 국가발전상 남녀의 실제적 평등 실현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좀 더 강화되기는 했으나 남성에게만이 아니고 여성자신에게 있어서 새로운 여성상을 위한 정신적 변화과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가정내에서 그리고 각 사회발전 분야에서 여성지위의 향상을 위해서 결혼

(가족)법과 그밖의 현존 법률들에 대한 여성의 대중적 자각 역시 미래의 발전을 위해 절실하다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계 모든 분야에서 사회 각층에서 여성이 실제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협동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사회적 환경 창출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한 방법으로 여섯가지 인습을 타파하기 위한 공식·비공식 교육실시와 함께 여성의 지적·기술적 개발과 모든 부분 특히 정치와 의사결정 부문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여성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자발적 조직체의 일반적 현상으로 각 조직체는 시행중인 계획의 효과와 효율에 영향을 주는 재정 및 전문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986년 12월 5일 국제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비정부조직체 - 정부조직체 - 유엔개발계획(UNDP) 연합의 공개토론회가 있었다.

이는 개발계획을 위한 비정부조직과 유엔개발계획의 상호협조 증진과 비정부조직체들 자체내의 계획이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으로서 그들 계획의 효과와 효율이 증대될 수 있었다.

1977년 총선거 국회: 460석중 37명의 여성의원	국민자문회의: 920석중 58명의 여성의원
1982년 총선거 국회: 460석중 42명의 여성의원	국민자문회의: 920석중 69명의 여성의원
1987년 총선거 국회: 500석중 59명의 여성의원	국민자문회의: 1000석중 75명의 여성의원

해양보전의 중요성

바다에 대해 좀더 친근하자

오늘날 해양은 인류가 남긴 마지막 보고(寶庫)로서 토지에서 채취할 수 없는 단백질 등 각종 영양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안기희 (민주정의당 정책조정실 보사전문위원·행정학박사·
본회 소비자보호연구위원)



해양은 인류가 남긴 마지막 보고(寶庫)

인간은 해양(바다)으로부터 갈을 길 없는 무한한 은혜를 입고 있다.

원시생물의 형태를 갖추게 하고 인류의 원조를 키운 생명원소가 모두 바다에서 연원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의 무한한 관용으로 물에서 물으로 향한 모험적 도약을 생물의 흔적과 사

암(砂岩)에다 그 역사를 새겨왔다.

해양의 너른 품안에서 고대 동·식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신생세대에 있었던 약 100만년 전의 인류의 출현은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해양을 지구 표면의 3분의 1(약71%)을 차지하고 육지를 지배하며 기후조건을 결정짓기도 한다.

또한 해양은 조류(潮流)를 통하여 온냉(溫冷)을 안배하며 수증기를 대량으

로 발산하여 인간과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풍우, 기압 및 습도를 조절한다.

그런데 인간은 해양으로부터 어패류를 마구잡이로 포획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근래와서는 생명의 요람인 해양을 쓰레기와 오물의 마지막 종말 처리장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을 출현시켜준 어머니의 품안과 같은 바다에 대한 올바른 행동인지 우리 소비자들에게 묻고 싶다.

오늘날 해양은 인류가 남긴 마지막 보고(寶庫)로서 토지에서 채취할 수 없는 단백질 등 각종 영양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리 피속에 나트륨과 칼슘의 비율이 바다에서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비율이라는 점에서 인류의 고향을 바다라고 단정하는 주장이 있다.

이렇게 우리인간과 친근한 바다에 대해 우리는 너무 무관심해 왔다.

해양은 머잖은 미래에 어패류 외에도 각종 광물자원, 해상도시, 레저시설, 해양호텔, 해양박물관 등으로 크게 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해양은 배출구 없는 너른 호수

해양보전의 중요성을 말할 때 먼저 지적할 점은 해양은 동식물 프랑크톤의 보고라는 점이다. 이 프랑크톤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모든 생명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생태계의 계층을 표시하는 엘튼의 '생물학적 피라미트'의 절반이상이 바다에 사는 생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음식물중 중요한 부분이 이 바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사실 현대 경제학자들은 육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식량부족의 문제를 모

두 해양에 기대를 걸고 있는 형편이다. 그만큼 해양은 주요 관심사이다.

그렇다면 경제활동으로 인한 해양오염은 생물학적 근원인 프랑크톤을 죽이는 행위가 되고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생명유지에 유용한 단백질을 고갈시키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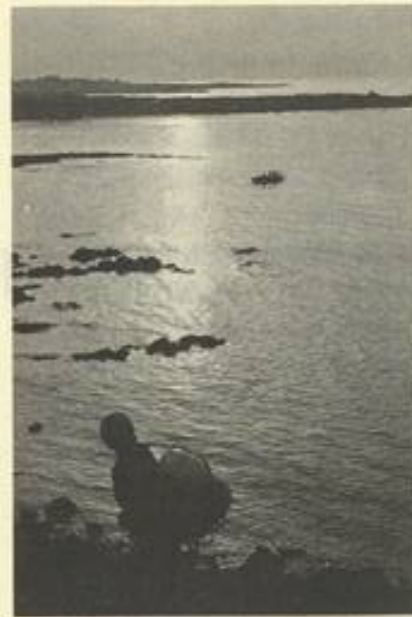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인간은 조금씩 먹고도 오래까지 생명을 연장해갈 수 있지만 호흡을 앓고는 단 몇분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즉, 기아로 인한 죽음은 수주일간 걸리며, 갈증으로 인한 것은 수일간이 걸리나, 질식으로 인한 불과 몇분이면 충분하다.

만약 우리가 어떤 행위로든 프랑크톤을 전멸시킨다고 가정할 때 인간과 짐승이 이용할 수 있는 산소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동시에 숲도 훨씬 줄어들게 되어 생태계에는 큰 교란이 예상된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닦부른 초원과 숲지대가 도시화와 산업화로 점점 줄어들고, 도시에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숲이 대형화되어 감에 따라 우리인간의 산소는 점점 해양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로 몰아가고 있다. 즉 육지생물이 해양생물에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죽은 바다는 죽은 지구를 의미한다'고 가정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해양이 오염되고 각종 폐기물이 등등 떠다니고, 고기가 살 수 없도록 상처받아도 될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 해양에 나가보면 폐유는 말할 것도 없고, 바다밑이 안보인지 오래이다. 싱그러운 냄새가 코를 찌르던 바다도 이미 아니다. 조개와 해조류가 오염과 냄새로 인해 식단에서 밀려나고 있다.



산업화이후부터 각종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는 어김없이 대륙붕인 연안으로 직접 흘러 들어간다. 이러한 유독성 화학물질이 육지를 오염시킬까 봐 바다에 던져지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소비자 스스로가 카펫 밑으로 폐기물을 밀어넣듯이 폐기물을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비해 점점 유독하고 썩지 않는 폐기물을 바다로 보낸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바다는 이제 이러한 모든 악성 폐수와 고형 폐기물을 정화할 능력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너르고 너른 바다는 이제 유한한바다, 호수로 한정되어지고 있다.

지구 전체가 배기통이 없는 외로운

우주선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 역시 배출구가 없는 너른호수에 불과하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연안보전의 중요성

지금 우리나라는 한때평양시대, 황해시대, 북방개척시대라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력을 해양으로 크게 확장시키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부산, 울산, 온산, 아산만, 평양만, 인천 등은 우리나라의 관문으로 큰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울산, 온산 등의 대부분의 연안은 이미 오염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

왜 연안은 보전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

해양생물은 일광외에 광물질 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연안 지역에는 이러한 양분중 몇가지가 강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며 나머지는 해저에서 올라온다. 그리고 해조류는 싱싱한 유기질이 듬뿍 담긴 강물을 기다리고 있다.

연안 밑바닥에는 표면 가까에서 분해되고있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쏟아져 내려온 양분이 풍부하다. 내륙연안처럼 강한 해저류와 분류가 일어나는 지역에서만 이들을 표면으로 돌려 보낼 수 있다.

모든 해양생물중 어림잡아 90%가 대륙붕이라고 부르는 얕은 연안지역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은 바다 총표면의 약8%에 해당되며 해양용적의 1%라는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흔히 들 경작 가능지라고 할 때 이용가능한 표토만을 이르는 것이지 땅밑 깊이 뻗어 있는 불모의 암석까지 치는것은 아니다. 인간은 토지에서 곡식을 수확하

듯이 바다연안에서도 계속 거두어 들
여야 한다.

그런데 인간이 실제로 가장 심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곳은 모든 생물이 가
장 풍부하게 집중되어 있는 곳, 바로
연안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오염원은 해상활동에서도 연
유하지만 주로 육지에서 온다.

산업화이후부터 각종 공장폐수와 생
활하수는 어김없이 대륙붕인 연안으로
직접 흘러 들어간다. 이러한 유독성 화
학물질이 육지를 오염시킬까봐 바다에
던져지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잘못
은 없을 것이다.

'죽음의 바다는 죽음의 지구'를 만
든다는 전제라면 인류가 마지막 남긴
보고, 이 바다를 더이상 폐기를 종말
처리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에는 폐기물이 선진국에서 개발
도상국으로 해상에서 불법으로 거래되
는 과정에서 불법투기가 잦다고 지적

되고 있다.

인간을 우선시해온 선진국조차 유독
성 폐기물을 후진국으로 이전한다니 자
기 나라만이 깨끗하고 다른 나라는 오
염되어도 좋다는 논리인지 묻고 싶다.

또한 선진국들은 유독성 폐기물을 용
기에 밀봉하여 북해에 버려온 것도 사
실이다. 특수용기에 밀봉되었다는 구
실하에 대량의 핵폐기물과 못쓰게된 전
쟁용 유독가스를 대서양에 내다버린 미
국의 행위에 많은 찬반론이 제기되었다.

나중에 이와 비슷한 용기들이 아이
리쉬바다(Irish Sea), 영국해협 및 북
해와 같은 얕은 바다에 저류와 함께 떠
돌다가 깨어진 결과 수많은 물고기들을
매죽음으로 몰고간 사실이 있다.

얕은 발틱해(Baltic Sea)에는 50년
전에 7천톤의 비소함유물이 시멘트용
기에 포장되어 버려졌다. 이와같은 용
기들이 이제 모두 새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용기들의 유독성을 모두 모으

면 세계 전인류를 살해하는데 필요한
양의 3배이상에 해당된다고 추론하고
있다.

스며나오는 폐수와 하수에 의한 해
양오염은 즉각 대책을 강구하기는 어
렵겠지만 너무 끔찍하고 위험한 유독
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즉각 중단되
어야 한다.

국제간의 노력

오늘날 국제간에서도 해양협약과 해
양관계법으로 해양보전에 신속하고 탄
력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왜냐하면 해양은 끊임없이 흐르기 때
문이다. 보통 바다는 중발작용으로 정
화된다고 가정하지만 중발작용은 순수
한 물만을 내보낼뿐 모든 유독물질과
고체 및 용해된 폐기물은 그대로 영원
히 바다라는 수렁에 남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강은 액체오염물질 180억㎥
(톤)씩을 매년 바다로 실어나른다. 파
리시 하나만으로도 매일 120만㎥의
미처리 폐수를 세느강으로 방출한다.
독일은 하루 3천6백만㎥을 강으로
보내고, 라인강만도 3만톤의 염화나트
륨을 포함한 약5만톤의 폐기물을 매일
방출한다.

그리고 세계는 약10억파운드의 DDT
를 환경에 쏟고 있으며 이와같은 대부
분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결론으로 해양보전에 국제간의 협력이
더욱 절실한 이유는 해양은 육지처럼
국경도 없이 계속 흘러간다는 사실때
문이다.

흐르는 바다는 영원히 인류의 공동
유산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평화와 보전
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해외 여성소식

독일: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증가

전문직업 분야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례
로 23세의 젊은 두 독일 여성인 Nico-
la Lunemann과 Evi Lausmann은 루
프트한자 항공사의 조종사로 비행할 수
있기를 꿈꾸어 왔었고, 1988년 8월에
보잉 737기로 실시된 훈련을 훌륭하게
완수한 후 그 꿈을 이루었다. 언젠가
그 젊은 두 독일 여성들은 기장으로 승
진되었지만 일단은 '이급승무원'의 단
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들은 빨라
도 12년이 다 돼서야 기장으로서의 비
행기 운항을 기대할 수 있다. 같이 입
사한 남자 동료들과 똑같은 혹독한 훈
련을 겪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이 젊은 두 여성이 취득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여성들은 독일 경제의 다른 분야로도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재 Flens-
burg에 있는 중앙차량등록사무실(Cen-
tral Vehicle Registration Office)의

책임을 맡고 있는 Erika Emmerich는
1989년 1월부터 독일자동차 산업협회
(Association of the German Car In-
dustry: VDA)의 총수직을 이어받기로
되어 있다. 이로써 자동차 산업에 종
사하는 약 750,000명의 고용인들을 대
표하게 되며 남성만이 전문적이고 노
련해서 VDA의 총수직을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게 되었다.

세 딸의 어머니인 Frau Emmerich는
"나는 여성들의 미개척 분야로 나아가
고 있다. 하지만 이 개척자적인 역할
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직
업 여성들은(독일에서 힘든 육체 노동
을 하는 27만명중의 10만명은 여성들
이다.) 그들이 바라는 전문직의 기회
가 없음을 불평한다. 특히 남성들이 거
의 도맡다시피하고 있는 기술직과 과
학분야가 더욱 심하다고 한다. 아직까
지는 독일 산업의 고위 관리직의 겨우
10%만이 여성들이다. 여성들의 전문
직 취업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 1988년 여름에 Göttingen에서 개
최되었던 '자연과학과 공업기술에 종
사하는 여성들의 회합'의 창시자중 한
사람인 Ursula Danzer는 "독일은 고
도로 산업화된 국가들중에서 여성 엔
지니어를 가장 적게 훈련시키고 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오늘날, 독일 직업 여성의 5명중 한
명은 새로운 공업기술들의 이용을 통
한 자동화의 높은 단계, 예를 들어 컴
퓨터와 워드 프로세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보잉 737기 조종사로 임명된 Evi Lausmann

백성희·김금지·박정자

한국 정상급 여성연기자 3명

현대 여성문제를 다룬

『여자의 역할』에서 공연

박금옥 (중앙일보 문화부 차장)

이 연극은 수천년전부터 여성을 구속하고 여성들에게 무조건으로 희생 강요하던 모든 굴레를 과감히 벗어나라고 외치고 있다.

여성들 스스로가 깨어나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자유로워지고 또 남성들과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연극계의 정상에 있는 여성연기자 3명이 나란히 한무대에 오른다. 60대의 연기자 백성희씨(61·국립극장)와 40대의 김금지(48·극단자유)·박정자씨(47·극단자유)가 그들.

오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 압구정동 현대예술 극장에서 공연될 『여자의 역할』에 출연하는데, 이탈리아의 극작가 겸 연출가인 다리오·포와 그의 아내인 연극배우 프랭크·라예가 합작으로 대본을 쓴 것이다.

위난 이 작품은 총4부로 구성되었던 모노드라마였으나 이번 한국공연에서는 3부로 각색하여 각부의 주인공을 달리 하여 무대에 올리게된 것이다.

박정자씨가 출연하는 제1부는 '아침

에 일어나서' 꿈속에서조차 일에 쫓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다 깨어나는 결혼한 한 직업여성(공장여공)의 기상시간부터 출근까지의 에피소드를 다룬 것이다.

남편과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덧붙여 집안 일을 도맡아 돌봐야하는 여인의 늘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여성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하루중 단1분도 갖고있지 못하다.

직장일, 남편 돌보는 일, 아기 키우기, 집안일, 하루 24시간이 모두 나 아닌 남을 위한 시간으로 짜여져 있다. 밥식을 멀며 출근하기 위해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이 그 지겨운 공장일을 안 해도 되는 일요일인걸 깨닫고 그는 다시 이불속으로 들어간다.

김금지씨가 등장하는 제2부는 '여자 혼자서' 남성들에게는 늘상 일어나는 외도가 여성들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되어있는 사회. 그러한 불문율을 깨뜨리고 단 한번의 일이 있었던 형벌로 그는 남편으로부터 집안에 감금 당한다. 그후 집안에서 그가 겪는 일들로 내용이 엮여져 있다.

교통사고로 다쳐 집애와 머물고있는 영란한 시동생의 간호, 아기 돌보기, 전화로 응급처치를 늘어놓는 괴한, 건너편 아파트에서 몰래 자신을 훑쳐보는 염탐꾼, 외처중 남편, 남편의 외도를 전화로 알려주는 미친놈...

집안에 갇혀있는 그를 주변의 모든 남자들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참고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다 그는 자신

의 찢어진 아기만을 제외한 모든 남자를 정면으로 거부하기 시작한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이렇게 당하기만 하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살던 굴레를 던져버렸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한다. 과거의 자신을 떠나자 비로소 자신을 만나게된 것이다.

제3부는 백성희씨가 출연하는 '메디아' 이 작품의 흐름을 귀결시켜주는 부분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감으로써 철저히 버림받은 한여인의 복수 이야기.

그는 남편이 떠나자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의 것, 자식들까지 죽음으로써 완전한 무소유의 상태로 돌아가 자유를 얻고자하는 것이다.

희랍비극 '메디아'에서 주제를 빌려온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남자를 향한 최대의 보복이 되는 것이다.

직장일을 하면서도 역시 육아와 가사를 도맡아해야하는 취업 기혼여성의 이중고, 결혼을 했든, 안했든 남성에게는 상관없이 여성에게만 강조되는 일방적인 정절, 싫어진 아내를 버리고 떠나는 아내유기, 이 모든 것이 수백년 전과 크게 다르없이 여성들에게만 씌워지는 굴레인 것이다.

이 연극은 수천년전부터 여성을 구속하고 여성들에게 무조건으로 희생을 강요하던 모든 굴레를 과감히 벗어나라고 외치고 있다.

여성들 스스로가 깨어나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자유로워지고 또 남성들과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여성연극을 무대에 올리기로 착상한 것은 백성희씨. 이 작품을 모노드라마로 공연할 경우, 연기자도 힘들고 관객도 지루하게 되리라고 생각, 3명이 한부씩을 맡기로 하고 김금지·박정자씨와 공동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박정자씨는 1부내용이 "자신의 생활 그대로이다" 김금지씨는 "대사량이 많아 부담이 크다" 백성희씨는 "그리스 비극 '메디아'를 현대에 접목시켜 자식을 죽일 정도의 강인한 성격표출이 우리의 도덕과 갈등을 일으킬까 걱정이다"고 얘기한다.

여러분 한국 초유의 호화캐스트가 연기해낸 오늘의 여성문제가 관객들에게 얼마만한 무게로 전달되어 감동을 자아낼지 자못 궁금하다. ♣

간통죄 폐지 아직 때가 이르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임 상담간사)

몇년전으로 기억이 된다. 간통죄폐지를 놓고 사회적으로 거세게 찬반양론이 일었으며 그 결과 간통죄폐지는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실정에 비추어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따라서 지금도 이 법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정부에서 간통죄폐지를 들고 나왔다. 아마도 애정의 문제이자 윤리의 문제인 간통을 범죄로 다스린다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간통죄폐지를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라할 수 있는 이들은 이 법이 폐지되어야한다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간통은 그 성질상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사로인 애정문제까지 일일이 개입하는것은 헌법의 법익보호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며 형법에 간통죄를 규정함으로써 강제로 사회의 미풍양속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외에도 공권력의 남용을 들어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생각하면 위에서 말한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아주 근거없는 것은 아니며 어떤 의미로는 당연한 주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냉

정하게 합리적으로 따져 본다면 위에서 주장한 이야기들은 너무도 현실을 외면한 낭만적인 이상론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단순히 간통행위를 남녀간의 애정문제라 일축하여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규정한다면 당사자 스스로에게 그 해결을 맡길 수도 있으며 맡겨도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부중 한사람에 의하여 간통이 저질러졌고 그로 인해 그 가정이 파괴된

다면 이래도 이것을 법이 관여해서는 안될 사생활의 영역이라하여 모른체해야만 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천에 따라 국민들의 윤리의식이 많이 바뀌어 간통죄폐지는 필연적인 것이라하나 이것 역시 현실과 맞지않는 말이다. 오히려 무분별한 서구문화의 영향과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무도덕성과 부도덕성이 그 극치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타락할대로 타락한 개개인의 인격과 도덕적 양심에만 이를 맡겨 해결하게할 수 없음은 너무도 극명한 사실이며 이 법이 통과된 36년전보다 오늘날에 있

어 더 절실하게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설령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간통죄폐지를 논한다하더라도 이는 가족법과의 깊은 관계속에서 논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즉 부부중심의 가족관계는 단순히 사랑을 기반으로하는 성생활을 떠나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상호간의 의무와 역할 책임이 따르게 되며 이런 모든 것들은 가족법의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남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축첩제도라는 일부다처제가 사실상 근절되

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듯 이중생활을 암암리에 하고있는 남자들이 대항하여 그들이 더이상 아내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최후의 무기인 간통죄를 다른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없이 폐지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열등한 위치에 있는 아내의 입장을 더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더욱이 여자의 경우 막대한 골목에서야 비로소 간통죄를 행사하게 되며 간통죄고소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공권력 남용이라는 말 역시 가당치 않다.

따라서 간통죄폐지는 남자들의 사고방식이나 의식에 변화가 있을 때, 즉 혼인의 순결을 중요시하고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를 제대로 지키며 이행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책임의식이 철저해졌을 때 그리고 이혼후 아내에 대한 철저한 생활보장, 이혼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등 현재 가족법상 남자와 여자를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규정 등이 완전히 개정내지는 신설되었을 때 다시 거론되어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



이중생활을 암암리에 하고있는 남자들이 대항하여 그들이 더이상 아내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최후의 무기인 간통죄를 다른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없이 폐지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열등한 위치에 있는 아내의 입장을 더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들의 광장

- 대한간호협회
- 대한여학사협회
- 대한조산협회
- 중앙부인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가톨릭여성연합회
-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 대한전문경영인협회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대한간호협회

제56회 대의원 총회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2월 10~11일까지 팔레스호텔 볼룸에서 제56회 대의원 총회를 열어 '88년도 간협 사업 및 결산보고, 국제간호협회의 서울 총회 조직위원회 사업 및 결산보고를 그대로 통과시키고 제2차 장기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1차년도 세부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정했다.

김모임 대한간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간호교육제도 향상과 정책 연구활동 강화, 전문직향향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면서 국제간호협회의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윤지영 전 경남지부장-공로패, 조인자 간협사무총장-10년 근속상, 김영숙 의협신보기자-감사패가 수여되었으며,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 간호수가 현실화, 간호전담부서 설치, 가정간호사업의 제도화, 간호사 정원, 제19차 국제간호협회의 서울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관한 6개항의 건의문과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윤리와 사명에 관한 5개항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제2차 장기사업계획은 주요정책과제로 조직강화, 정책연구강화, 간호교육수준 향상, 간호업무수준 향상, 사회경제복지증진, 대지역사회사업강화, 전문직관 확립, 국제교류확대, 신문사·출판사 체제확립을 골자로 하고 1989년부터 1993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대한여학사협회

제39차 정기총회 개최



박용언 회장

대한여학사협회는 지난 1월 31일 동 협회 회관에서 제39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9대 회장에 박용언씨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회원 과반수(위임 56명 포함)가 참석한 가운데 회장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정관개정안을 승인하는 한편 울산지부 신설을 비롯,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김인숙 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왔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역부족에서 온 것"이라 말하고 "그러나 보다 내실을 기하는 협회의 발전은 회원의 끝없는 지도관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는 임시의장에 최애경 이사를 지명하고 한말숙, 나은실, 오미나, 정효진, 이현정 회원을 전행위원으로 뽑아 이들 전행위원에 의해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박용언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시 지부 회장의 경험을 살려 막중한 책임을 정성껏 수행해 나갈 것이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정신을 기

대한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이대 영문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대학 영문과 강사를 지냈으며 대한여학사협회 이사, 부회장, 동 협회 서울시 지부 회장직을 수행해 왔다. 현재 이대 영문과 동창회장직을 맡고 있다.

대한조산협회

제40회 대의원 총회 개최

대한조산협회는 지난 2월 28일 동 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에 있어서 모자보건사업의 전망'이란 주제아래 제40회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회사에서 조중숙 회장은 전문인으로서의 조산사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춧돌로 스스로 권익을 찾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의료제도과장으로부터 보건사회부 장관의 축하 대독, 보건사회부 가족보건계장의 주재강연이 있었다.

대구·경북지부 회원 신년 교례회

대한조산협회 대구·경북지부는 2월 11일 회원간의 친선과 결의를 다지기 위한 신년 교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새로 선출된 이옥기 지부장, 전중앙회 회장 김향란씨 및 지방유지가 참석하였다.

제5차, 6차 국시준비위원회 개최

'90년 1월중 조산사 국가고사를 앞두고 협회차원에서 조산수습생에게 수험 안내를 하기위한 제5차, 제6차 국가고시 준비위원회가 2월 15일과 2월 23일 연세대학 간호대 학장실에서 열렸다.

한편 조산협회에서는 조산사 수습기관의 조산사교육 지침이 될만한 교과서적안대를 하였다.

조산사 수료식

경기도의 조산사 배출기관인 안양병원과 신영순병원에서는 지난 2월 25일,

2월 28일 각각 10명, 24명의 조산사 수료식이 있었다.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안양시장 등 지역유지가 참석하여 격려와 축하가 있었으며 조중숙 회장은 "전문직여성, 고압인력으로 모자보건 사업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참 조산사상을 정립하라.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조직을 통해 여성사회 진출에 적극 호응·참여하라"는 내용의 축사를 하였다.

지부회원 도내 모자보건 계장으로 발령

대한조산협회 강원도지부 김경배 회원, 황순필 회원, 양용녀 회원이 도내 모자보건 계장으로 인제, 철원, 양구에 발령을 받았다.

또한 충남 신창례 지부장은 지난 2월 28일자로 대전시 보건과 가족보건계장으로 임명받았다.

경기도지부 모자보건계장으로 서영분 회원, 조명숙 회원이 안성군과 광주군에 발령을 받았다.



제56회 대의원 총회-간호협회



제40회 대의원 총회-조산협회

인천·경기지부 총회 개최

대한조산협회 인천지부와 경기지부 총회가 2월3일과 2월22일 지부 회의실과 가족계획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지부 총회에서는 지역사회 공로자로 장선 회원, 최순자 회원, 이신자 회원 등 3명이 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중앙부인회

제32차 정기총회 실시

중앙부인회는 2월23일 선미의 집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실시하였다. 1부는 예배시간으로 김세암 부회장의 사회, 박순덕 이사의 반주, 이정화 이사의 기도, 임은임 이사의 성경말씀으로 진행되었다.

2부는 이순옥 회장의 사회로 전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가 차례로 있었고 198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단, 이사진의 재연임 투표가 있었다. 이순옥 회장과 김세암

부회장이 그대로 유임되고 현 이사들도 전원 유임되었다. 그리고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고 기타 토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1989년 사업중의 하나는 중앙부인회의 교육생 자녀와 지역어린이를 위한 탁아운영을 실시할 계획인데 장소만 허락되면 속히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태영 소장 ICJ 총회 참석, 뉴욕 등 지부설치 준비 돌아보고 귀국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태영 소장은 국제법률가위원회(ICJ) 총회에 참석하고 자 지난 1월12일 출국한 후 20일만인 2월1일에 귀국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사업부의 독립'이라는 주제로 닷새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이태영 소장은 3년 임기의 ICJ 부회장에 다시 선출되었다.

국제법률가위원회 일정을 마친 뒤 이 소장은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를 방문, 지부설치 준비작업을 의논, 격려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준비가 완료되어 조만간에 미국내 세곳에 상담소 지부가 개소될 것으로 보인다.

알기쉬운 형사법 강좌 개강

지난 1월23일 상담소 6층 대강당에서 한승헌 변호사의 '형사법' 강좌 제1강이 있었다.

이날 강의는 '법의 본질과 형사법'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강의 첫날을 맞아 한승헌 변호사는 강의의 주안점을 교양법학의 성격에 유의하여 사례중심으로 법 이해의 사고력과 민주시민의 권리의식 함양에 역점을 두어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제9기 탁아모교육 개강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는 지난 2월

17일 제9기 탁아모교육을 개강하였다.

자신의 일을 갖고자 하는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일자리를 원하는 주부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자녀를 가진 직장여성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탁아모교육은 영·유아의 중요성, 유년기의 성격형성, 영·유아의 간식, 유아원 실습 등을 3개월 과정으로 배우게 된다.

주부클럽에서는 매년 2차례의 탁아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30세 이상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녀를 키워 본 주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16기 신혼주부학당 개강

주부클럽에서는 미혼여성 및 신혼주부들을 대상으로 생활의 지혜와 예의범절 등을 가르치는 신혼주부학당을 2월24일 개강하였다.

대부분의 신혼주부들이 막상 결혼을 하면 실생활에 익숙치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예비신부나 신혼주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댁과 친정간의 관계를 비롯, 요리강습, 육아, 홈패션 등의 의·식·주에 걸친 실습위주의 학습으로 2개월 과정으로 실시하게 된다.

제16회 매주바자회 개장

주부클럽에서는 2월23일 본회 회관(세로나6층)에서 김천주 회장을 비롯,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매주바자회를 개장하였다.

그동안 직접 매주를 꾸는 주부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주부들의 호응을

받아 왔는데 예년에는 소비자가 이용하기 쉽게 백화점을 바자회 장소로 했으나 올해는 백화점의 물의를 일으킨 세일관계로 본회 회관에 장소를 마련한 것인데 재래식매주, 재래식매주가루, 막장매주가루, 개량매주, 옛기름, 고추가루, 떡매주, 떡매주가루 등을 판매한다.

기간은 3월31일까지이며 바자회 이익금은 보석아동급식 보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가톨릭여성연합회

한국의 전통예절 교육

가톨릭여성연합회는 2월27일 가톨릭회관에서 혼례관습 등 잊혀져가는 한국의 전통예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의 강사는 김명희 선생(숙대 평생교육원 강사)이었으며 회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전통예절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었다.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BPW 20년사 발간 축하 및 '89년도 촛불의식의 밤

창립 스무돌을 맞은 전문직업여성클럽 한국연맹은 BPW 2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아울러 '통일과 전문직여성'이라는 주제하에 1989년도 촛불의식의 밤을 개최하였다.

지난 2월25일 저녁6시 롯데호텔 사파이어홀에서 많은 내외귀빈, 주한

각국대사, 그리고 BPW 전국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이 행사는 1968년 부산·서울클럽의 탄생을 시작으로하여 현재 전국의 13개 클럽으로 구성된 BPW가 지난 20년의 역사를 종합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전문직여성 한국연맹 발자취'를 출판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또한 여성 지위향상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매년 BPW의 전 세계회원들이 서로를 축복하기 위한 촛불을 밝히는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했다.

'통일과 전문직여성'에 대한 양호민 교수의 주제강연과 김영정 정무제 2장관의 축사가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참석한 BPW회원들은 1989년도에도 스스로를 맡없이 태우면서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는 촛불의 소박하고도 숭고한 정신에 힘입어, 사회 각 분야의 여성지위가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활동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한전문군경미망인회

제55차 이사회 및 지부장 연석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군경미망인회는 2월21일 미망인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및 이사,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89년도 제55차 이사회 및 지부장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양순임 회장 각종 행사 참석

미망인회 양순임 회장은 시당국이 마련해준 서울상이군경 복지회관 개관식



(2월2일, 상계동 상이군경복지회관), 전쟁기념회 회관 창립식(2월10일 향군회관 1층), 한국반공연맹이 주최하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안보정세 보고회(2월10일, 타워호텔 레스토랑)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였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정월 대보름 요리 무료 강습회 실시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는 민속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잊혀져가는 우리 음식맛의 계승을 위해 2월16일, 서울시 본회 조리실과 2월17일, 대전시 충남여성회관 강당에서 일반여성 및 회원을 대상으로 '정월대보름요리 무료 강습회'를 실시하였다.

정월대보름은 달을 숭상하던 우리민족의 큰 행사중 하나인데 정월대보름 음식인 오곡밥, 약식, 나물구절판(묵은나물), 복쌈 등의 조리방법을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과 함께 왕준현 회장의 지도로 강습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강습회를 통해 대보름의 세시풍속이 우리민족이 살아오면서 삶의 한부분으로 정착되어진 문화로 민족의 슬기와 얼을 엿볼 수 있었다는 평이었다.

근로여성 고발창구 이용안내

본회는 직장에서의 성차별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여성고발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 동급직위에 대한 차별임금문제, 승급 및 직무배치상의 차별, 결혼희직종용, 기타 의학상의 문제등 근로여성이 겪게 되는 제반문제, 취업상의 차별문제

상담방법 : ● 전화 793-5196
● 편지 :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14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근로여성 고발창구 담당자
● 직접내방 상담



BPW 20년차 창립 축하 및 1989년도 초콜릿의 밤

협의회 소식

제30차 정기총회 개최

본회는 2월21일 2층 회의실에서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구성원 51명 중 31명의 참석으로 성원되어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는 1988년도 감사보고, 사업보고, 결산보고에 이어 1989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개정할 수 있는

정관개정안은 정족수 미달로 심의하지 못하였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그간 회장의 적법성 여부로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김경오 회장이 재신임을 물은 결과 참석자 전원의 지지를 얻어 재신임을 확인했다.



가족법 개정사업 소식

지난 2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드디어 150여명 의원이 제안·서명한 가족법개정안을 심의하였다. 그러나 "호주제를 없애면 누가 부모를 모시느냐?"는 식의 수준이하의 질문과 비논리적인 의견진술로 회의가 진행됐다. "가족법 개정안은 가족제도의 전통을 뒤엎는 혁명적 개정안"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는 조찬형(평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족법 심의 소위원회(위원: 강재섭(민정), 김광일(민주), 박충순(공화))을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결정을 미루어 이번 회기에 개정안의 통과가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앞으로의 전망도 대단히 어둡게 되었다.

이에 앞서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단체연합(회장 이태영)에서는 민주화의 열기에 힘입어 여성의 총력을 모아 가족법개정 촉구대회를 개최, 단결된 힘을 과시해 보자는 제안도 검토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유럽의 반대를 두려워하는 국회의원의 태도와 국민도 모르게 개정돼 온 수많은 입법에 비추어 이 개정안이 조용히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는 전력이 받아들여져 대회 개최안이 부결된 바 있다.

부산여협 제11회
정기총회 개최



직 위	성 명	소 속 단 체
회 장	최정자	기독교여자절제회
부회장	김예리사	목련회
	차정희	주부클럽부산지부
총무	차숙희	주부교실부산지부
재무	고정숙	한국부인회부산지부
감사	백경숙	부산 B. P. W
감사	김수옥	여성유관자녀행부산지부

지방여성단체
소식기사 모집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427(140-013)

회				장	김	경	오	강남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2-307	584-1426
부				장	김	옥	환	인천시 북구 산곡동 370-71	032-93-3493
부				장	오	정	순	울산구 아현동 302-69 장우맨션 202호	794-1882
부				장	김	경	회	구로구 신도림동 미성아파트 5-106	671-0326
서	기	이		사	박	옥	기	성동구 옥수동 한남 하이츠아파트 9-503	232-9090
서	기	이		사	강	연	지	과천시 중앙동 주공아파트 10단지 1012동 401호	503-4691
회	계	이		사	정	숙	자	동작구 대방동 58-490	815-2244
회	계	이		사	조	동	민	강서구 신정 4동 983-1 이안빌딩 4층	603-5779
감				사	정	영	숙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14-1001	542-1430
감				사	강	기	원	종로구 산교동 2-30	736-8229
조	직	관	리	위	장	박	주	강남구 역삼 1동 672-12	567-3234
재	정	위	원	장	정	숙	자	동작구 대방동 58-490	815-2244
출	판	공	보	위	장	김	주	서초구 서초동 1494-16 롯데빌리지 나들 102호	586-3541
기	학	연구	위	장	송	화	설	대구시 남구 대명 4동 3012-23	053-623-2133
국	제	관	계	위	장	인	숙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5-4534
사	무	총		장	김	금	래	강동구 망월동 삼익그린아파트 507동 1109호	471-7865

회원단체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대한간호협회	김 모	임	중구 생림동 88-7	279-3618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여 귀	옥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대한여학사협회	박 용	언	도봉구 쌍문동 423-44	993-2378
대한조산협회	조 중	숙	중구 장충동 1가 35-5	279-1972
여성문제연구회	박 정	자	중구 북창동 18 대학문화원 304호	273-7645
중앙부인회	이 순	옥	성북구 보문동 2가 7	95-210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 태	영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3	782-3427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 천	주	중구 남창동 1-2 새로나백화점 6층	752-4227
가톨릭여성연합회	박 애	주	중구 망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송 화	섭	용산구 청파동 2가 53번지 화빌딩 303호	718-0915
범태평양동남아시아여성협회	문 용	주	강남구 삼성동 113-1 코스모스텔 305호	557-8773
한국부녀복지연합회	김 옥	환	마포구 공덕동 427	712-0713
한국여성항공협회	정 숙	자	중구 봉래동 1가 132-5	755-5341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오 정	순	강남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국자수협회	김 태	숙	강동구 전호1동 227-3	477-5383
한국우먼스클럽	김 인	숙	성북구 보문동 2가 46	94-5523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양 순	담	강남구 반포동 425-1 반포쇼핑타운 7동520호	533-1906
국제존타서울클럽	이 운	경	종로구 재동 55 한국병원	763-1461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최 옥	자	종로구 광창동 537-9	352-1872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	양 순	임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782-2862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정 영	숙	강남구 서초동 1161-2 약사회관	581-1201
우리웃협회	이 은	임	종로구 사간동 74번지	734-9477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왕 준	려	종로구 청진동 286	733-4983

편집후기

어느덧 겨울이 끝나고 봄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각 단체에서 새로이 펼쳐질 사업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 호 특집은 본회를 비롯하여 본회 회원 단체가 올해 펼칠 사업계획을 소개합니다. 각 단체의 사업을 참고·비교하는 기회가 되고, 보다 성공적인 사업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월간여성 • 1989년 3월호 통권 261호
(매월 10일 발행)

●발행: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김경호

편집인: 김광래

인쇄처: 코리아 헤럴드

사진식자: 현리기획

발행일자: 1989년 3월 10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428

☎ 793-5196, 794-4560

●편집: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김전주

위원: 김희자 / 박금옥 / 박영혜 / 박용옥 /

신동식 / 오종자 / 최장성

담당: 오해란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쇠고기 20% 고급양념 쇠고기감치미 맛이 확실히 다릅니다

“왜 많은 주부님들께서
쇠고기 20%인 감치미로
바뀌셨을까요?”



맛이 다릅니다.

맛을 좌우하는
쇠고기 함량이 20%나
되기 때문에 월등히 좋은 맛을
내주면서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20%

함량이 다릅니다.

쇠고기 함량이 5%밖에 안되는
기존 종합조미료에 비해
쇠고기 함량이 20%나
됩니다.



양념입자가
다릅니다.

신선한 고급양념이기
때문에 쇠고기, 파, 마늘,
양파, 버섯 등 각종
양념입자가 눈으로
확인됩니다.



포장이 다릅니다.

새로운 스틱형 포장이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하고,
영기거나 눅눅해질
임려가 없어 매우
위생적입니다.



주식회사 미원

미원

감치미

쇠고기국물